
중국, 베네주엘라 경제의 구세주

(2014. 11.)

콜롬비아 보고타 사무소

- 최근 유가하락으로 베네주엘라는 디폴트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나, 중국의 지원으로 현 경제위기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
 - 중국은 '07년 이후 베네주엘라에 500억불을 지원해오고 있음.
- 베네주엘라 대통령 Mr.Nicolas Maduro는 지난주 경제장관 Rodolf Marco가 신규 차입 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
- 한편, 현 Maduro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동국 통화 Bolivar의 평가절하, 고율의 인플레이, 기초 생필품 부족 등으로 30%까지 추락하는 등 전 대통령 Hugo Chavez가 21세기의 사회주의라고 지칭한 베네주엘라가 몰락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나, 중국의 지원으로 Maduro 정권은 시간을 벌 것으로 전문가 들은 예상
 - 지난주 Maduro 대통령은 232억불까지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 중국에서 제공한 인프라 건설을 위한 40억불의 Credit을 사용
 - 또한,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최근 13억불을 지원하는 등 중남미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 중
- 베네주엘라 외환수입의 약 96%를 점유하고 있는 유가의 하락 등으로 동국의 달러 수입은 약 35%가 감소하고 있으나, Maduro 대통령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지난주 발표

- 다만, 베네주엘라는 비효율적인 세 종류의 공식환율 등에 의거 유가가 100불 수준에 있을 당시에 외환 부족에 시달렸고, 최근 동국산 유가는 4년이래 최저가인 70불까지 하락하자 OPEC 등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
- 한편, 중국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베네주엘라의 경제난 지원을 위해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해 최소한 일 330,000배럴을 중국에 공급하는 계약 조건을 해지
 - 베네주엘라에서 중국으로의 원유공급 완화는 국제원유시장의 공급초과 및 중국 경제 저성장이 반영된 것임.
- 중국의 베네주엘라에 경제지원은 장기적으로 중국기업의 동국 앞 유전확보, 오일 서비스 산업·광업 등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 끝.